

은행권 최초 '보이는 ARS 서비스'

전북은행,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대기시간 축소·편리한 상담 이뤄질 듯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음성 ARS 안내와 모바일 화면을 결합한 '보이는 ARS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보이는 ARS 서비스'는 음성멘트를 끝까지 듣고 키패드를 눌러 진행해야 했던 기존의 음성 ARS 상담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텔레뱅킹에서 자주 이뤄지는 조회, 이체, 결제, 사고신고 등의 주요 업무와 고객센터 상담업무에 포함된 62개의 서비스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직접 보면서 처리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23개의 모바일웹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 고객의 대기시간 축소와 편리한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보이는 ARS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스마트폰뱅킹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나 청각 장애인 등의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은행 보이는 ARS 서비스는 은행권 최초 '웹 접근성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5000 세대를 위한 큰글씨 기능, 실시간 채팅상담 연결, 모바일을 통한 영업점 순번대기표 예약 등 기존 음성 ARS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여 전북은행만의 고객 편의 서비스가 강화된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모두 지원하게 되며, 대표 고객센터(1588-4477), JB카드고객센터(1588-3321), SSGPAY 고객센터(1522-3311)를 비롯한 전북은행 각 지점별 대표번호에 전화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통화 연결후 휴대폰에 '전화' 또는 '볼게이트' 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이는 ARS 서비스'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ARS 상담 진행 시, 전용앱 설치를 위한 URL이 문자 발송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거래가 강화되고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고객 만족을 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며 향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지능형 고객센터가 되기 위해 디지털을 활용한 채널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앞으로 디지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고객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전북은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간척지 나리 경관농업

새만금 간척지, 대면적 구근재배 최적지

전북농기원, 친환경 나리 구근재배 현장실증 시험 결과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새만금 간척지에서 친환경 나리 구근재배 현장실증 시험을 한 결과, 광활한 새만금 간척지가 나리, 마늘 등 대면적 구근작물 재배의 적합지라고 밝혔다.

나리(백합)는 장미, 국화과 더불어 국내 3대 절화 및 경관용 자생 식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 2019년에 616톤을 수출 611만불을 벌어들여 국내 절화류 수출량과 수출액이 가장 많은 화종이다. 또한 2019년 수입량이 807톤으로 국내 재배구근의 90%를 외국에서 수입해 로열티 절감이 가장 필요한 화종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그결과 우리지역 벼 농사 부산물로 생산량이 많은 양겨울 토양에 혼합재배하면 간척지 토양 유실 방지에 효과가 있었고 생산성 또한 우수했다. 재배지 영농철 잡초발생 억제를 위하여 녹색비닐, 백색비닐, 흑색비닐, 부직포 등을 처리한 결과 녹색비닐 피복재배 처리가 생육이 우수하고 제초 노동력이 80%이상 절감되는 결과를 보였다. /익산=장영원 기자

'정부 그린뉴딜 정책 부응 위한 기술협력'

전기안전공사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원)가 전력산업인들의 협력을 굳건히 다지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협력의 장을 열었다.

공사는 지난 19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한전,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등 전력산업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제15회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중계와 병행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군산대학교 이상일 교수의 'K-그린뉴딜 해상풍력 기술동향 및 전망' 발표를 시작으로 7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졌고 국내

전력산업의 다양한 노하우 공유와 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토론이 펼쳐졌다.

주제발표에 앞서 열린 유공자 포상행사에서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서부발전 안대선 차장 등 7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한국전력 김광진 부장 등 12명이 공사 사장 표창을, LS전선 하광수 부장이 공사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성원 사장은 "최근 '한국판 뉴딜'로 태양광, 풍력 등 그린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한전,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등 전력산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15회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를 개최했다.

"전력산업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 개발을 통한 설비안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업용 트랙터 조작표시 기호' 3종

ISO 표준기호 채택

농진청 개발... 2015·2018년 이어 세번째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에서 개발한 '농업용 트랙터의 조작표시 기호' 3종이 지난달 30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기호로 채택됐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이 농업기계 분야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이용한 트랙터 선회반경 시험방법(ISO, OECD(2015년)', '트랙터 중심위치 측정방법(ISO)(2018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중 '트랙터 중심위치 측정방법'은 트랙터 안전도 평가 항목 중 전도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것으로,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 표준으로 채택됐으며, 현재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신길)이 함께 2017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뒤 3년에 걸쳐 기술적 대응을 거쳐 이뤄낸 것이다.

이번에 국제표준화기구 표준기호로 채택된 '농업용 트랙터의 조작표시 기호' 3종은 트랙터 계기판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계의 안전사용을 위해 후진하거나 선회 시 작업기를 들어 올리도록 경고하는 표시다.

농업용 트랙터 조작표시 기호는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에 따라 제작되며,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기호 3종은 그동안 표준기호가 없어 나라별, 기업별로 다르게 사용돼 오던 것을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것이다.

그동안 농업기계 분야 국제표준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주도해 왔으나 최근에는 일본, 중국 등도 자국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 농업기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유리하도록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신승엽 과장은 "농업기계 분야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기계와 시험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국내 농업기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전라북도 위탁사업인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센터장 및 센터원을 채용한다.

앞서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민간과 행정을 연결하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우수계약자를 체결한 바 있다.

채용인원은 센터장 1명과 선임코디네이터 1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원서접수는 오늘부터 30일까지며,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기타 자세한 채용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19~20일 마련한 '2020 공간정보포럼' 전문가 토론회에서 '디지털트윈 전주 행정모델'이 구현되기까지 데이터 구축·가공·융합부터 행정서비스 모델로 구현하는 전 과정의 기술을 전시·시연해 주목을 끌고 있다.

디지털 트윈 활성화 위해 데이터 표준화 시급

LX·국토부 공간정보 전문가 토론회 제1회

디지털 트윈 전주 행정모델 구현 기술 시연도

3차원의 디지털 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를 구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예측이 가능한 기술인 '디지털트윈'을 활성화하려면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지난 19~20일 양일간 마련한 '2020 공간정보포럼'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공·민간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에 앞서 데이터 표준화 체계를 마련하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소아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가 기업 바이브컴퍼니 센터장은 "최근에 정부 다부처가 추진하는 지하공동구 연구사업에 참여하면서 첫 질문이 '데이터 표준을 무엇으로 할까'였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데이터 표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해주 전 KT 빅데이터 사업지원단 상무는 "정부가 시범사업만 하다가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작은 규모라도 디지털트윈을 실제로 적용해 그것을 통해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작은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민 한컴라이프케어 이사는 "디지털트윈이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려면 다양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아우르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주 전 상무도 정부의 지속 가능한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소아 센터장은 "대한민국은 프로세스 행정이라 틀을 정하면 업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한 번의 시범사업과 한 번의 기술검증에서 끝내지 말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내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그것이 지속 가

능한 상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택진 공간정보 본부장은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13~14세기 유럽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된 이유를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이종간 융합을 시도했다는 데서 찾았다"며 "디지털트윈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민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명확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LX가 전주시와 구축 중인 '디지털트윈 전주 행정 모델'이 구현되기까지 데이터 구축·가공·융합부터 행정서비스 모델로 구현하는 전 과정의 기술을 전시·시연해 디지털트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날 포럼에는 LX 김정렬 사장을 비롯해 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 박경열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장, 김석중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디지털트윈 관련 기술 및 산업계 동향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윤상 기자



나눔문화 확산 협약 체결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지난 20일 공사 새만금읍에서 전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병관, 이하 협의회)와 나눔문화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따뜻한 새만금, 살기 좋은 전북 만들기 슬로건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 중인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양 기관은 지역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효율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 지원한다. /김윤상 기자

'우리 농산물 20% 할인받고 구입하세요'

aT, '대한민국 농합감시다' 캠페인 확대 진행

'대한민국 농합감시다' 캠페인이 최대 20% 할인쿠폰 제공과 함께 적용대상과 구매처도 대폭 확대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산물 판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대한민국 농합감시다' 캠페인을 지자체·공공기관, 전통시장, 생협·직매장 등과 함께 확대 진행한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우리 농축산물 구매유도와 판매확대를 위해 최대 20%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할인대상 품목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포함한 양곡·축산·채소 등 신선 농축산물과 김장철 배추와 절임배추, 지역특산물, 100% 국산원재료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과 함께 한살림,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아이콜

등 4개 생협의 481개 매장, 14개 로컬푸드직매장의 25개 매장이 참여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구매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7개 지자체·공공기관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를 비롯해 해남군의 해남미소 등 온라인몰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우체국쇼핑의 경우, 행사 시작 이틀 만에 쿠폰비용 9,000만원과 함께 4억5,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aT 운영배 농식품거래소 본부장은 "先할인쿠폰 제공, 품목확대 등 소비자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였다"며, "이번 캠페인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함께 부문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김영명 의심되면 '1339'로